

EU의 귀농·귀촌 사례 - 덴마크 사례를 중심으로 *

임 송 수

1. 귀농·귀촌의 역사적 배경

1970년대 들어서 서부 유럽과 미국에서 대도시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반면에 도시 인구의 이주(migration)로 말미암아 외딴 소규모 지역의 인구는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인구의 탈집중화 현상 또한 완화되면서 재도시화(reurbanization)가 다시 주류를 이루기 시작하였다. 이후 도시화란 대세 속에서도 역도시화(counterurbanization) 또한 중단되지 않고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¹⁾ 예를 들면 역도시화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핀란드에서조차 도시 인구가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동구권 유럽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소규모 농촌 지역을 생산성이 없다고 간주하여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를 권장하고 강제적인 산업화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경제 전환기를 거치면서 농촌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농촌관광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구(舊) 산업이 붕괴되면서 사람들의 이주가 자유롭게

* 본 내용은 「 'Counterurbanization: A Literature Study, Danish Institute of R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및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고려대학교 임송수 교수가 작성하였다(songsoo@korea.ac.kr).

1) '역도시화(counterurbanization)' 에 관한 정의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밖에도 다양한 용어가 사용된다. 예를 들면, '탈도시화(desurbanization)', '도농 간 이주(urban-rural migration)', '인구 회귀(population turnaround)', '농촌으로 인구환류(rural repopulation)' 등이다.

변했지만, 동구권 유럽 국가들에서 농촌지역 인구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들어 이들 국가에서 관측되는 일부 역도시화 현상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도시발전 단계를 도시화(urbanization), 교외화(suburbanization), 탈도시화(desurbanization), 재도시화(reurbanization)의 4단계로 정형화하였을 때, 탈도시화 또는 역도시화는 교외에 진출하여 사는 사람들이 더 이상 도시 중심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교외지역의 감소와 일부 농촌지역의 활력 회복으로 이어졌다.

역사적으로 역도시화는 1960년대에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신대륙인 미국에서도 1960년대 말부터 대도시의 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가 일부 나타났다. 1970년대에는 앞서 언급한 핀란드를 제외한 북유럽 국가들에서 역도시화가 명백한 사회현상으로 제기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동구권 유럽 국가들에서도 역도시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 북유럽 틀에서 역도시화의 개념과 특성

지난 수십 년간 역도시화에 관한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그 용어와 개념이 완전하고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혹자는 인구의 ‘비집약화(deconcentration)’ 과 정으로 정의하여, 큰 거주지에서 작은 지역 또는 외지고 작은 농촌지역으로의 이주로 묘사하였다. 이 정의에 따르면 하더라도 무엇이 ‘외지고(remote)’고 ‘농촌(rural)’인가에 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편의상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농촌’을 정의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농촌의 개념이 통계나 특정 건물의 건축양식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방식(social formation)까지 포괄하는 것이라 한다면 쉽지 않은 이야기가 된다. 농촌의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이로써 역도시화가 다르게 정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OECD는 인구의 50% 이상이 농촌지역에 살고 가장 큰 도시 중심에 20만 명 미만의 거주자가 살 경우 이를 농촌으로 정의한다. ‘중간지역(intermediate region)’은 농촌지역에 15~50%의 인구가 거주하고 가장 큰 도시중심에 50만 명 미만의 거주자가 사는 곳이다. OECD 정의에 따라 농촌과 도시지역을 구분한다면 아일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리스 등 많은 유럽 국가들에는 오직 한 도시지역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수도(capital)로부터 이주하는 모든 경우가 역도시화로 기록된다.

역도시화에 내포된 개별적인 특성은 다양하게 묘사된다. 첫째, 단순한 생활방식이

다. 도시화에 상반되게 평범하고 단순한 생활방식을 자발적으로 추구한다. 밖으로는 단순함을, 안으로는 풍성함을 지향하는 것이다.

둘째, 가구(households)의 이동이다. 크고 중심된 도시에서 작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다. 이는 도시 거주지의 재배치와 이주의 동기(motivations)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단순히 정착패턴의 변화를 뜻하지 않는다. 곧 일상의 도시체제로부터 이동이라고 하는 ‘탈중앙화(decentralization)’와 도시체계의 낮은 단계(예: 농촌지역)로 이주해 내려가는 ‘탈집중화(deconcentration)’가 모두 전제되어야 비로소 역도시화가 설명될 수 있다.

셋째, 탈집중화 과정으로서 특성이다. 역도시화는 단순히 도시를 빠져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과 직장이란 삶의 터전으로서 농촌지역을 선택하고 삶의 양식도 변화시키는 것을 뜻한다. 공간이란 개념에서 살펴보면, 역도시화는 도시 변두리에 거주하면서 도심과 연계된 생활을 영위하는 교외화(suburbanization)보다 더 멀리 떨어져 사는 것과 관련된다. 덴마크의 경우 수도인 코펜하겐(Copenhagen)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은 뉴질랜드 섬(island of New Zealand) 거의 전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역도시화의 개념은 단순히 사람의 이동뿐만 아니라 정착체계(settlement hierarchy)에서 직업의 이주까지 포괄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역도시화는 복잡한 탈집중화 과정이며 귀농자들의 삶의 방식까지 변화시킨다. 귀농을 결정하는 과정에는 환경, 안전, 이웃환경과 같은 부드러운 요인들이 직업, 소득, 생활비와 같은 강한 요인들만큼 또는 이보다 더 중요하게 작동될 수도 있다. 귀농이나 귀촌은 보다 시골다운 삶의 방식을 찾는 것이다. 자연에 둘러싸여 진정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목가적인 농촌(rural idyll)’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넷째, 거주지 개발의 과정으로서 특징이다. 앞의 세 가지 특징 모두는 인구배분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거주지가 지역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만족할만한 고용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부로 출퇴근하는 사람보다 지역 안에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이른바 ‘역도시 거주(settlement counterurban)’이다.

3. 귀농 · 귀촌의 동기

오늘날 농촌이 겪는 경제적 및 인구학적 문제로 말미암아 농촌이 인구를 유입하거나 현 인구를 유지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교육과 직업을 위해 젊은 세대는 대도시로 이주를 선호한다. 농촌의 삶이 전원적이며 더 나은 환경이라 하겠으나 실제로 귀농과 귀촌을 결정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귀촌은 선택적인 과정이다. 이에 따라 귀촌에 관한 선호나 동기 및 귀촌지역은 나이나 교육수준, 소득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특정 지역에 끌리게 되는 요인들도 다양한데 예를 들면 접근성, 현대화의 정도, 서비스, 고용 가능성, 자연환경, 삶의 방식, 가족 연대, 오락시설 등이다.

역도시화를 설명하는 요인은 크게 구조에 따른 요인, 사람들의 행태와 관련된 요인, 연령 특정 요인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구조에 따른 요인은 신규 귀농·귀촌을 고용과 사람들의 이윤추구에 따른 반응으로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필요나 희망에 따라 스스로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관련해 할 수 없이 이주한다는 관점이다. 이 요인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세부요인으로 나뉜다.

① 운송과 소통체제

이는 접근성과 관련된다. 기술발전에 따라 직장과의 공간상 위치가 더욱 확대되었고, 가족과 인간관계 또한 폭넓어졌다. 예를 들면,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텔레하우스(telehouse)’를 설치하여 직장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거주지 근처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② 경제와 고용

보통 경제상황과 이주 사이엔 양(+)의 관계가 성립한다. 경제가 성장하면 도시화가 속도를 내는 반면에 경제가 기울 때에는 도시화가 주춤하게 된다. 대량 생산주의가 쇠퇴(post-Fordism)하고 탈산업화(de-industrialization)로 말미암아 대도시의 실업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역도시화가 발생하였고, 공공서비스 등 농촌지역에서 고용 수요가 증가하였다.

신막스주의(neo-Marxism)는 자본이 인구와 사업 밀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농촌지역에서 제대로 투자된 신규 사업은 다른 사업에도 양(+)의 파급효과를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언제나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이러한 사람들의 대응이 경제적 변화를 반영한다고 보는 신고전주의(neo-classical)는 귀농·귀촌이 고용과 이윤이 주도하는 과정이란 견해를 제시한다. 결국 사람들은 삶의 질과 효용 증대를 위해 이주하기 때문에 임금이 높은 지역에 순 이주가 발생한다는 해석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실업자가 농촌지역에서 고용될 수 있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이주 가능성이 높아야 하는데, 실증적인 측면에서 고용의 변화와 이주 사이의 음(-)의 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는다.

귀농·귀촌은 인적자본(human capital)에 관한 장기 투자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 이론은 더 나은 미래의 이익을 위해 생활 및 근무 환경과 연관된 물질·사회적 자본에 사람들이 투자한다고 밝힌다.

헝가리에서 나타난 이주 양상은 서유럽 국가들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어 주목된다. 예를 들면, 중상층 소득계층의 고급 주택화(gentrification) 과정으로 말미암아 저소득 가정은 도시에서 밀려 집값이 싼 농촌 및 주변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다. 고소득 계층에서 지속되는 도시화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③ 정부의 역할

정부의 개발정책은 지역 간 이주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1970년대에 덴마크가 세운 국가개발계획은 이주의 방향을 돌려놓았다. 1999년에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지역 간 격차 문제를 다루기 위한 ‘유럽지역개발조치(European Spatial Development Perspective)’를 채택하여 그 응집력(cohesion)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각 정부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모든 지역에서 기반시설에 적절히 접근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함을 뜻한다. 최근에는 조세부담의 경감, 이주에 우호적인 정치 환경 및 법 규정 등이 마련되면서 특히 젊은 세대의 이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④ 상향식 계획

이주가 결정되면 지역적 요인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심지어 귀촌한 사람들 간 경쟁도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응하려면 지역 수준에서 귀촌한 사람들을 위한 계획이 잘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특히 소규모 거주지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행태와 관련된 요인은 개인의 선택에 근거한 접근방식이다. 과거엔 경제적 목적으로 할 수 없이 이주한 경우가 많았다면 오늘날에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경우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① 목가적 농촌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이주할 때 사람들은 일종의 목가적 농촌을 찾는다고 한다. 역 도시화가 가장 빨리 촉진되고 있는 곳이 경치가 좋은 곳이란 연구결과도 있다. 농촌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살았거나 여행한 적이 있다든지, 그 지역에 있는 자

산을 유산 받았는지 하는, 지역과 연관관 경험을 경우가 많다. 반대로 이러한 연대가 약하더라도 평화, 조용함, 안심, 안전, 자연 등의 이미지를 가지고 귀촌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농촌에서 너무 고생하여 나쁜 기억을 가진 세대로부터 지금의 세대가 2세대 이상 떨어져 있고, 농촌이 더 이상 농업만이 아니라 여가와 행복한 가족관계 및 바람직한 자녀교육 터전일 수 있음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② 가족과 친구

사람들은 나머지 가족이나 오랜 친구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 귀촌하기도 한다. 이는 귀촌하는 사람들의 연령과 연계되어 설명되기도 한다. 연령 특정적 가설(age-specific hypothesis)에 따르면 사람들의 선호는 나이에 따라 변하는데, 특히 나이가 들수록 농촌 가치에 더욱 민감하게 된다고 한다. 과거에 탈농의 요인이었던 것이 오늘날 귀촌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③ 공동반응

귀농·귀촌은 부동산 가격 상승, 교통체증 등 도시화 과정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그룹이나 계층의 공동반응이 상이하게 표출되기도 한다. 지역사회가 동질화되어 가는 것은 사실이나 서로 다른 그룹과 거주지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면 높은 소득계층 그룹이 농촌지역에서 별도의 지역에 모여 살거나 저소득 계층의 진입에 대응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④ 개인주의

역도시화는 개인들의 결정에 따른 결과란 관점이다. 포스트 산업사회에서는 물리적 거리의 중요성은 작아지는 반면에 사람들이 어디서나 살고, 어디서나 일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다.

셋째, 연령 특정적 요인은 이주 동기의 복잡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경제적 변화와 고용으로 설명되는 도시화 과정의 초기 이주형태와 달리 귀촌민의 나이도 이주형태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이다. 곧 라이프 사이클이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지닌다는 설명이다.

① 장년 계층 (24~54세)

이 계층의 주된 귀농·귀촌 사유는 주택시설, 목가적 농촌, 더 나은 직업 등 삶의 질 향상에 있다. 이들은 삶의 공간뿐만 아니라 일하는 공간도 바꾸는데, 상대적으로 소소한 직업(참여형 직업(bridge job))이라도 스트레스나 긴 노동시간, 극심한 생존경쟁(rat race)에서 자유로움을 찾는다. 온화한 날씨의 남쪽지역으로 이주하고, 자녀가 성장하여 출가한 후 자유로워진 부모가 귀촌하는 이른바 빈둥지 증후군(empty nest syndrome)이 나타나는 계층이기도 하다.

② 은퇴 계층(65세 이상)

은퇴 계층은 편안함과 건강과 관련 특별한 서비스를 추구하며 이주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들은 생활 편의시설(amenity)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은퇴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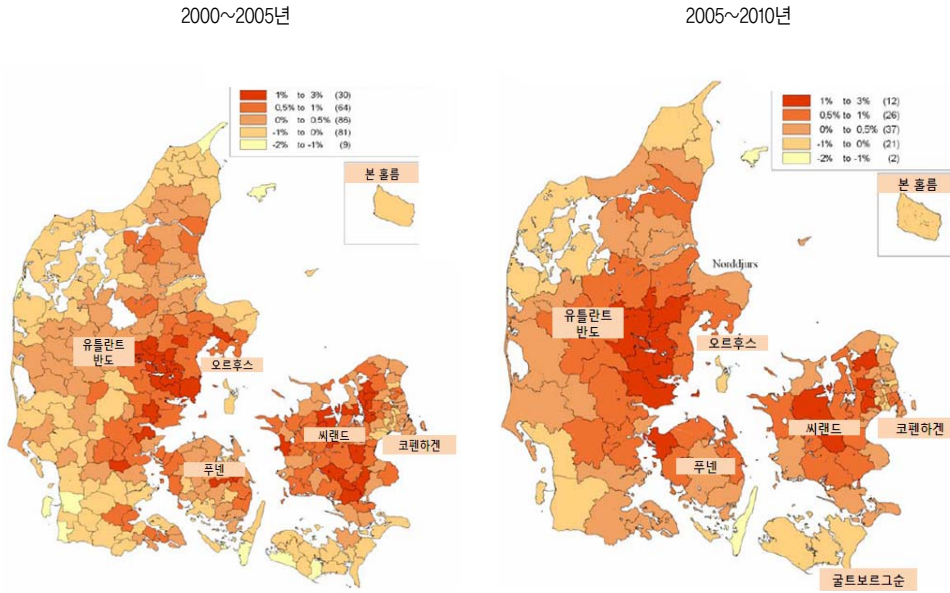
4. 덴마크의 귀농·귀촌 사례

귀농·귀촌은 소비 중심 또는 사람이 주도하는 방식과 생산 중심 또는 고용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정부 정책도 역도시화를 설명하는 요인이 된다. 이 밖에도 귀농·귀촌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한다.

4.1. 덴마크 농촌지역의 변환

지난 수십 년 동안 덴마크 농촌은 서유럽과 마찬가지로 인구의 감소, 거주민들의 고령화, 일자리 감소, 높은 실업률, 서비스의 감소와 편의시설의 악화, 전반적인 경제적 감퇴현상을 겪어왔다. 2000~2005년의 연평균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지역 간의 구별되는 양상과 차이를 알 수 있다<그림 1 참조>. 수도인 코펜하겐(Copenhagen)과 제2의 도시인 아후스(Aarhus)의 주변지역에서는 인구가 증가한 반면에 다른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인구성장이 정체 내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2005~2009년 자료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다만 귀농·귀촌이 코펜하겐 및 아후스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도심의 높은 집값이다.

그림 1 덴마크의 연평균 인구 변화율(%)



주택가격은 지역 사이에 아주 다양한 분포를 보이는데, 특히 대도시를 포함한 주변 지역과 함께 상승하고 있다. 네덜란드 부동산은행 협회(Association of Danish Mortgage Banks)에 따르면 1995~2005년에 인구집중 지역의 집값은 세배가 늘었다고 한다.

덴마크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집은 단일 가족형(single-family house)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토대로 대도시 중심과 주변의 집 값 변화가 어떻게 농촌과 변두리 지역으로 이주와 연계되는지를 밝히는 것은 유용하다. 선행 연구들은 집 값 이외에도 집의 크기와 형태, 여가의 질 등도 귀농·귀촌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4.2.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의 특성

귀농·귀촌에 관한 덴마크 사례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 가운데 한 연구는 2002년 자료를 근거로 하여 당해 연도에 총 5,500호가 주변지역(peripheral area)으로 이주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농촌지역(countryside), 11%가 마을(village), 26%가 더 작은 마을, 그리고 16%가 더 큰 도시로 이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0km 이상 떨어진 주변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교육수준은 전체 이주자들 평균보다 높지는 않았으나, 농촌에 거주하는 기존 사람들의 교육수준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신규 이주자들의 20% 가량은 해당 지역에 새 직장을 얻은,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고, 18% 가량은 자녀가 있는 가정, 16% 정도는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주거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이주한 사람들이다.

이 연구의 사례 지역은 노르드주(Norrdjurs, Nord)와 굴드보르구순드(Guldborgsund, Guld)이다<그림 2 참조>. 덴마크는 5개 지역(region)과 98개 시(municipality)로 구성되어 있는데, Nord와 Guld는 2007년 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작은 지역들을 통합해 만들어진 곳이다.

이 두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나이 분포를 살펴보면, Nord에서는 18~24세에 속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주한 반면에 Guld에서는 50~66세의 이주민이 더 많았다<표 1 참조>. 생애(lifecycle) 그룹에 따라 세분하여 살펴보면 두 지역의 이주민 사이에 큰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2 참조>. 다만 Nord 지역으로 이주한 젊은 독신과 부부가 많은 반면에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은 Guld 지역으로 더 이주하였다.

그림 2 네덜란드 사례지역: Norrdjurs와 Guldborgsund



표 1 귀촌 인구의 나이 분포

구분	6세 이하	7~17세	18~24세	25~34세	35~49세	50~66세	67세 이상
Norrdjurs	1%	7%	26%	29%	22%	11%	5%
Guldborgsund	0%	4%	18%	30%	24%	20%	4%

표 2 생애주기 그룹의 분포

구분	30세 독신	30세 젊은 부부	7세 아동 소유 가정	6세 아동 소유 가정	30~60세 중년 독신	30~60세 중년 부부	60세 고령부부	60세 고령 독신	복합 가정
Norrdjurs	12%	12%	11%	9%	10%	12%	3%	3%	29%
Guldborgsund	9%	10%	14%	9%	10%	14%	6%	4%	25%

사회 그룹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Guld 지역으로 이주한 가정이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Nord 지역으로 이주한 가정 중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 비중이 더 컸다<표 3 참조>. 실업자들과 연금 또는 사회보장제도 수혜자들을 모두 합친 비중은 각각 1/3 가량으로 두 개 지역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3 사회 그룹에 따른 분포

구분	무능력자 지원 수혜자	사회보장제도 수혜자	고령 연금 수혜자	실직자	학생	취업자	기타
Norrdjurs	5%	11%	26%	13%	17%	44%	3%
Guldborgsund	7%	6%	18%	11%	11%	52%	3%

이주자들의 교육수준은 Nord쪽이 높았고, 고학력자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4 참조>. 반면에 Guld에는 직업교육을 받은 이주민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4 교육에 따른 분포

구분	고학력	중간수준 교육	직업교육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Norrdjurs	10%	14%	37%	5%	34%
Guldborgsund	7%	14%	41%	4%	34%

고용 상태를 살펴보면 Guld쪽의 취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5 참조>. Nord에 18~24세 계층의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영향을 받아 이 지역의 학생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5 고용에 따른 분포

구분	초등 중등학생	학생	취업자	사회보장제도 수혜자	취업시장 밖의 인구	연금 수혜자
Norddjurs	6%	14%	42%	12%	14%	12%
Guldborgsund	2%	11%	52%	11%	9%	16%

4.3. 귀농·귀촌의 정성적 이유

귀농·귀촌을 위한 결정에는 농촌과 ‘시골에서 산다’는 이미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집값과 집의 크기, 지역사회의 소속감 등도 또한 중요하다. 귀농·귀촌에 관한 결정은 또한 도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바람과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삶을 추구하는 데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연구에 따르면, 귀농·귀촌의 이유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 유형은 이주자들이 태어나고 자랐던 ‘농촌의 뿌리’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경우이다. 일부는 학교 교육을 마치거나 직업을 바꾸면서 돌아왔고, 다른 이들은 가족과 친척들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 이주하였다. 이 유형에 속하는 이주민들은 해당 지역과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

이주 동기로서 특히 교육은 중요하다. 대학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기관이 집중된 도시로 이주(도시화)하는 반면에 졸업 후에는 직업과 영구 거주지를 위해 농촌으로 내려오기(역도시화)도 한다. 참고로 덴마크에서는 기본 학교교육을 마친 학생들이 집을 떠나 농촌에 있는 이른바 ‘토속(folk)’ 고등학교에 1년 정도 거주하면서 앞으로 자기가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 발견해 가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젊은이들은 해당 프로그램이 끝나면 농촌을 떠나는 게 일반적이다.

영국의 경우 매니저나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평균보다 50~90% 더 많은 빈도로 이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적합한 직업이 있는, 특히 발전하고 있는 지역을 향한 이주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모든 지역에서 취업이 가능한 단순 노동

자의 이주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웨덴의 경우 독립적인 사업가들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이들이 취업할 수 없어 이주한 경우이다.

지역 간 이주하였던 20~59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덴마크의 연구에 따르면, 이주의 주된 목적이 직업이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에 불과하다. 이는 이주를 결정하는 게 먼저이고, 그 후에 새로운 거주지 근처에서 직업을 갖는 것을 뜻한다.

둘째 유형은 꿈을 이루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해 오는 경우이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비록 지역에 관해 제한된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농촌의 목가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이주를 결심한 것이다. 두 군데 사례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 대부분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이들은 농촌의 삶에 관해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자연에 가까운 삶과, 삶의 방식 전환이란 동기를 가지고 귀촌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셋째 유형은 오락, 자연 또는 특정 지역의 주택 품질을 찾아 이주해온 경우이다. 이 사람들은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보다는 한적한 지역에서 지내는 것을 선호하는 부류로, 그 출신 지역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스웨덴의 한 연구는 많은 사람들이 집과 관계된 삶의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귀농·귀촌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른바 ‘소득-전이 가설(income-transfer hypothesis)’에 따르면, 정부의 영구적인 이전보조를 받게 되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집값이 싼 농촌으로 이주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또한 스웨덴에서는 일을 통해 얻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가 농촌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것이 밝혀졌다.

4.4. 귀농·귀촌의 실증적 이유

2002년 기준으로 덴마크에서 이주한 총 42만 3,000가구를 대상으로 농촌으로 이주한 가구와 비교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교육, 직업의 변화, 퇴직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모든 이주 사례와 비교할 때 농촌으로 이주한 가구의 가장들은 더 젊고, 낮은 소득을 가지고 있었고 결혼한 경우가 많았으며 교육수준이 높았다.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모두 동질적인 그룹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이 활용되었다. 군집분석을 통해 농촌으로 이주한 동기가 7개 군집으로 밝혀졌다<표 6 참조>.

표 6 귀농·귀촌한 사람들에 대한 군집분석 결과

단위: % 비중

구분	산출한 군집							
	1	2	3	4	5	6	7	전체
총 이주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28	8	8	18	9	5	26	100
직업 변화	0	67	35	0	0	0	100	33
교육 마침	0	60	0	0	0	0	0	5
퇴직	0	1	12	0	100	0	0	10
고용된 자로서 독립주택 소유	0	0	5	24	0	0	0	5
실직한 자로 독립주택 소유	0	1	4	0	0	100	0	5
고향으로 귀촌	0	21	100	0	0	0	0	9
부부	0	51	49	91	44	36	53	43
이주 전에 취업	15	79	47	50	0	0	98	49
학생	37	2	20	19			2	15
연금수혜자	22	0	10	14	19	48	0	13
50세 이상	18	7	10	21	33	42	10	18
자녀와 거주	0	51	49	91	44	36	53	43
부모로부터 독립	15	5	1	0	5	1	9	8
결혼	1	10	6	32	15	16	18	14
이혼	16	14	21	5	17	9	12	13
이주 전 독립주택에 거주	61	37	38	50	54	0	50	49
이주 후 독립주택에 거주	39	68	65	78	71	100	66	63

직업을 바꾼 그룹(군집 7)은 새로운 거주지 가까이 직장을 두고 있다. 이주와 더불어 아파트에서 독립주택으로 거주형태를 바꾸는 경향이 있다. 가족관계의 변화와 이주가 연계된 비중이 높는데 약 40%가 이혼 또는 새 파트너와 함께 이주하였다. 이 그룹 사람들은 농촌으로 이주한 전체의 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교육을 마친 그룹(군집 2)은 교육 후 태어난 곳으로 일부가 돌아온 경우, 또는 농촌에서 새로운 직업을 찾은 경우이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젊고, 절반가량이 자녀를 둔 부부이고, 34%가 결혼을 했거나 이혼했으며, 높은 소득을 기록하였다. 이 그룹이 전체 이주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이다.

자라난 곳으로 회귀한 그룹(군집 3)은 젊은 자녀를 둔 부부이며 독립주택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다. 21%가 이혼했고 이주와 연계해 35%가 직업을 전환하였으며, 12% 정도는 퇴직하였다. 학생과 연금수혜자가 그룹에 포함되어 있고, 전체의 평균 이주자들보다 소득수준이 낮았다. 이 그룹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이다.

퇴직한 그룹(군집 5)은 80% 정도가 실직 또는 19%가 은퇴한 사람들로 도시화되지 않은 지역을 선호하고, 일부는 집 때문에 이주하였다. 나이가 많고 소득이 낮으며, 약 44%가 자녀를 둔 부부들이다. 전체 이주 가구의 9%를 차지한다.

주택을 원하는 통근자 그룹(군집 4)은 자녀를 둔 중년부부가 32%로 근무지의 변경 없이 농촌지역의 농원과 집을 누리기 위해 이주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일부는 연금 수혜자이며 학생도 있다. 이들은 먼 통근거리에 다른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이 그룹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이다.

일하지 않으면서 주택을 원하는 그룹(군집 6)은 대부분 독신이면서 실직된 사람들이며 독립주택을 구입하여 더 나은 생활을 하려고 한다. 앞에서 언급한 소득-전이 가설에 해당하는 계층이다. 이들은 주택비용을 낮추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였다. 가장 나이가 많은 그룹으로 절반가량이 연금수혜자이며 소득이 낮았다. 약 1/3이 자녀를 둔 부부이다. 이 그룹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이다.

학생 및 저소득 그룹(군집 1)은 농촌으로 이주한 매우 낮은 소득을 지닌 독신 위주로 전체의 28%를 차지한다. 대부분 젊고, 37%의 사람들이 학생으로서 농촌지역의 교육기관에 다닌다. 일부 연금수혜자들도 있는데 이들은 소득-전이가설에 해당하는 계층이다. 이 그룹은 이주 전후 독립주택에 사는 비중이 61%에서 39%로 줄어든 유일한 군집이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했거나 이혼했기 때문이다.

5. 귀농·귀촌과 농촌사회의 통합 및 영향

많은 신규 이주민들은 농촌의 폐쇄적인 환경을 느끼고 있다. 특정지역으로 ‘전입한 사람(incomer)’라는 용어 자체가 ‘침입’이란 느낌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에 의한 ‘식민화’란 감정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주민들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신규 이주자를 농촌사회가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거주지 상태보단 사람들의 적절한 행동과 자세에 달려 있다. 특히 덴마크의 사례는 선택적 소속감(elective belonging)을 높이는 좋은 방편으로써 자녀와 함께 이주하는 것이 유용함을 알려준다. 자녀교육을 위한 이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는 것이므로 이주자 대부분은 그들의 새로운 지역에 속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반응을 나타내었다. 지역에 대한 애착(place attachment)은 사람과 지역 간 효과적인 연대 또는 지역에 관한 감성적

관여로 정의할 수 있다.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주 후 일부 가족이나 친구와 친분을 잃었고, 그들의 소속감이 다른 지역에 연계되었다고 밝혔다. 귀촌한 사람들은 현재 거주 지역에 강한 소속감을 나타냈다. 거주지 근처의 이웃들과 새로운 관계를 진전시키고 있다고도 반응하였다. 일부 응답자들은 새로운 거주 지역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지역과 연대를 느끼기 위해서는 거주 기간이나 거주지역과 이전 관계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귀농·귀촌은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추가적인 인적 자원을 농촌에 제공함으로써 혁신의 기회를 키울 수 있고, 다른 지역 기업에 이익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면 스페인의 아라곤(Aragon) 지역의 경우 귀촌한 이주자들에 의해 광고, 사업컨설팅, 테라피(therapy) 등 새로운 사업 분야가 개발되었다.²⁾ 이는 도시와 긴 통근시간과 농촌 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농촌의 삶과 지식 집약적인 분야를 결합한 성공사례이다.

귀농·귀촌은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농촌생활에 관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행복을 위한 자기평가에 작용한다. 많은 사람들이 농촌의 삶은 안전, 쾌적함, 통합, 가족부양에 적절한 곳 등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농촌으로 이주와 농촌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노동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왔다. 고령화 이외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힘든 노동조건 등으로 지역 사람의 농업 활동 참여는 제한적이다. 또한 농업부문의 노동수요가 계절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유연한 농업노동력의 이동과 다양한 문화적 기반을 확충하고 농촌지역이 더 이상 농업생산에만 직접 연계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6. 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 북유럽 특히 덴마크의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귀농·귀촌의 현황과 이를 둘러싼 이론 및 동기에 대해 선행연구를 기초로 살펴보았다. 가장 먼저 정리되어야 할 부분은 용어의 정의이다. 특히 ‘농촌’, ‘도시화’, ‘역도시화’ 등 명확하고 보편적인 정의가 부재한 상태에서 한국의 상황과 대비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한국은 농촌으로의 이주를 농업활동 곧 귀농과 연계하려는 성향이 강한 반면에서 북유럽 사례들

2) 아라곤(Aragon)은 스페인 동북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프랑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이 지역은 급격한 인구감소를 경험하였다.

은 거주 공간으로서 환경과 이주민의 기대를 강조하는 것 같다는 인상이다.

사람들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동기에 관한 요인분석은 한마디로 다양하며 복잡하게 제시되고 있다. 사람들이 이주를 결심하는 의사결정 과정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지역 특성에 따른 응답자의 상이하거나 심지어 상반된 반응도 현실 간 또는 이론과 현실 간의 괴리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주 동기로서 경제적인 요인보다 오락, 자연, 쾌적함, 자녀교육과 같은 정서적, 비경제적 가치가 점점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은 의미가 있는 추이라 하겠다. 그러나 경제적 요인 가운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농촌의 집값과 비농업 분야의 고용에 관한 여러 논의는 한국의 농촌 현실과 얼마나 연결하여 비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끝으로 귀농·귀촌과 연계한 정책조치나 노력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고 무슨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료 부족으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참고문헌

- Andersen, Hans. 2008. *Explanations for Counter-Urban Migration in Denmark*. Paper to ENHR Conference in Dublin 2008.
- Hosszu, Szilvia. 2009. *Counterurbanization: A Literature Study*. Danish Institute of R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Working Paper No.6/2009.
- Nørgaard, H. and C. Haagerup. 2009. *Moving to the Countryside: Neocomers in Peripheral Areas of Denmark*.
- Pinilla, V., M. Ayuda, and L. Saez. 2008. "Rural Development and the Migration Turnaround In Mediterranean Western Europe: A Case Study of Aragon." *Journal of Rural and Community Development* 3:1-22.